



12일 밤(한국시각) 포트엘리자베스 넬슨만델라 베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공월드컵 B조 첫 경기 한국-그리스 경기가 시작하기 전 열린 국민의례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며 한국 관중들이 대형태극기를 펼쳐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4-4-2 정공법에 그리스 벽 '와르르'

허정무호, 전술·체력·수싸움 완벽한 승리
중원 압박·제공권·세트피스 한수 위 기량



축구 국가대표 이정수가 12일 밤(현지시간) 남아공 포트 엘리자베스 넬슨만델라베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그리스전에서 슈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대표팀이 12일 오후(한국시각)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그리스를 2-0으로 꺾었다. 선수들의 전술 소화 능력이나 체력, 벤치의 수 싸움 등에서 모두 완벽하게 우위를 점한 기본 좋은 승리였다. 허정무 감독은 지금까지 준비해 온 대로 '정면돌파'를 택했다. 일단 그리스가 대회를 앞두고 포백이나, 스리백이나 전술 변화를 고민하는 듯했지만 허 감독은 그리스에 맞춰 준비해 온 4-4-2 포메이션으로 맞섰다. 다만 허 감독도 골키퍼 정성룡(성남)과 오른쪽 풀백 차두리(프라이부르크)를 선발로 내세워 체력 조건이 좋은 그리스에 대비했다. 베테랑 이운재(수원) 대신 골문을 지킨 정성룡은 후반 36분 테오파니스 케카스의 강력한 왼발 터닝슛을 차내는 등 선방을 펼치며 무실점으로 틀어막았고, 차두리도 수비는 물론 과감한 공격 가담과 날카로운 크로스로 힘을 보태는 등 허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이날 태극전사들은 중원 압박을 통해 그리스 공격의 출발점인 공격형 미드필더 요르고스 카라구니스를 공공 묶는 등 상대에 완벽하게 대비한 모습이었다. 카라구니스는 결국 전반 45분만 뛰고 교체됐다. /연합뉴스

전방에서는 박주영(모나코)을 축으로 염기훈(수원)과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청용(불턴)이 수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상대 수비를 괴롭혔다. 게다가 최정방 투톱으로 나선 박주영은 물론 중앙 수비수로서는 그리 큰 키가 아닌 조용형(제주·182cm)까지 탁월한 위치 선정으로 걱정했던 그리스 선수들과 제공권 싸움에서 한 치도 밀리지 않았다. 한국과 그리스 모두 세트피스는 득점원 중 하나다. 특히 장신을 이용한 그리스의 세트피스는 허정무호가 경계를 늦추지 않던 것인데, 이날 철저하게 무력화시켰다. 한국은 오히려 세트피스로 결승골을 뽑았다. 전반 7분 기성용(셀틱)이 왼쪽 코너 부근에서 차출린 프리킥을 이정수(가시마)가 오른발로 가볍게 갖다 대 골망을 출렁였다. 그리스 선수들이 골문 앞에 몰려 있었지만 기성용의 발끝을 떠난 공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이정수까지 전달됐다. 태극전사들은 체력에서도 그리스에 앞섰다. 그리스는 10km 이상 뛰 선수 중 중앙 미드필더 알렉산드로스 지올리사와 카추라니스 둘 뿐이다. 하지만 한국은 염기훈·이청용·박지성·김정우·차두리 등 다섯 명이 10km가 넘게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볐다. 특히 염기훈은 양 팀 선수 중 가장 많은 11.401km를 달리며 공·수에 걸쳐 활약했다. /연합뉴스



“선제골 지키기보다
이기려는 경기했다”

허정무 한국팀 감독

그리스 격침, 시작과 마무리 광주·전남 태극전사 해냈다

기성용 첫 골 어시스트, 박지성 두번째 골

광주·전남을 무대로 월드컵을 꿈꿔왔던 태극전사들의 꿈이 이루어졌다. 사상 첫 원정 16강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내세운 '허정무호'가 그리스를 상대로 첫 승을 사냥하며 순항을 시작했다. 당당히 남아공에 입성한 23명의 태극전사 중 광주·전남서 축구인생의 기쁨을 다진 선수는 기성용(21·셀틱 FC·급호고졸)·염기훈(27·수원 삼성·호남대졸)·김영광(27·울산 현대·광양제철고졸) 세 명이 있다. 그리스전 MVP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고향에서 태어난 전남출신이며, 중원을 누빈 김정우(28)도 광주 상무 소속으로 대표팀에 승선했다. 기성용·염기훈·김정우에게는 이번 월드컵이 처녀 출전. 태극마크를 달고 오른 첫 월드컵에서 세 선수는 스타팅 멤버로 나서 눈부신 활약을 선보이며 대한민국을

승리의 함성으로 물들였다. 그리스를 뒤흔든 첫 골은 급호고를 졸업한 기성용의 발끝에서 탄생했다. 전반 7분 이영표가 얻어낸 프리킥을 기성용이 책임졌다. 기성용이 반대쪽 포스트를 향해 올린 명품 프리킥은 쇄도하던 이정수의 오른발에 걸리며 그대로 골문을 갈랐다. 경기시작 7분 만에 터진 골로 한국은 공·수에 있어 그리스를 압도하면서 2-0의 완승을 거둘 수 있었다. 광주가 '축구의 고향'인 염기훈은 강철 체력을 과시하며 그리스 수비진을 뒤흔들었다. 박주영(AS모나코)과 함께 최정방 투톱으로 출격한 염기훈은 왼쪽 날개를 맡은 박지성과 실 새 없이 자리를 바꾸며 양 팀 통틀어 가장 많은 거리를 뛰었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올 시즌 상무 유니폼을 입고 광주에 새 등지를 쓴 김정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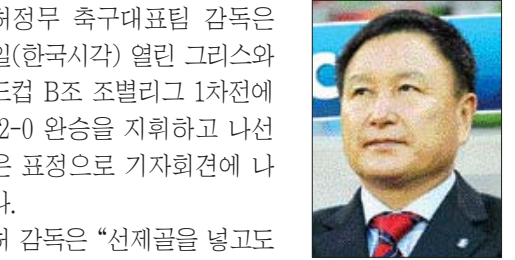
짧은 머리로 중원을 누비며 승전보를 알렸다. 기성용과 중앙을 책임진 김정우는 찰떡 호흡을 과시하며 그리스 주장 기오르조스 카라구니스의 발을 묶었다. 김정우는 기성용이 협력수비에 막힌 카라구니스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됐다. 고흥 출신의 '캡틴' 박지성은 후반 7분 상대 문전 중앙에서 불을 가로채 두 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왼발로 오른쪽 골문을 겨냥해 골을 터트렸다. 그리스를 침몰시킨 핵기폭이자 2002년 한일월드컵·2006년 독일월드컵에 이어 3개 대회에서 연속해 기록한 특별한 의미의 골이었다. 승리를 진두지휘한 허정무 감독도 전남의 사나이이다. 진도에서 태어나 목포중학교에서 축구인생을 시작한 허 감독은 전남 드래곤즈의 사령탑을 맡고 있던 2007년 대표팀 감독에 선임돼 태극전사들을 조련해 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르헨전 승점 챙기면 유리 3팀이 2승1패면 경우의 수

■ 한국 16강 전망

그리스를 꺾고 기본 좋은 1승을 거둔 한국이 남아공월드컵 16강에 오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조 1·2위가 16강에 진출하는 만큼 한국이 속한 B조 4개팀 가운데 특정 팀이 3패를 하면 세팀이 2승1패를 기록해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한다. 승점이 같을 경우는 골득실-다득점-상대팀간 전적-추첨의 방식에 따라 16강 진출팀을 가린다. 남은 경기를 선불리 예상하기는 힘들다. 아직은 여러 변수가 많지만 한국이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밝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두 말할 것 없이 한국이 남은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 전을 연파하는 것. 이 경우 3승으로 조 1위를 기록하며 16강에 오르게 된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1패를 안은 그

리스와 나이지리아가 똑같이 승점을 최소화하고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승점을 똑같이 나눠 갖는 경우. 즉 한국과 아르헨티나전, 그리스-나이지리아전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면 한국의 16강 진출은 유리해진다.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승점 4점이고 그리스와 나이지리아는 승점 1점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나이지리아전에서 지더라도 16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다. 한국이 아르헨티나에게 패하더라도 나이지리아와 그리스가 비기면 다소 마음을 놓을 수 있다. 남은 나이지리아전에서 비기지만 해도 16강에 진출하게 된다. 한국이 아르헨티나에게 패하고 나이지리아가 그리스를 꺾으면 한국과 나이지리아는 똑같이 승점 3점으로 최종전에서 승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12일(한국시각) 열린 그리스와 월드컵 B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2-0 완승을 지휘하고 나선 밝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에 나섰다. 허 감독은 “선제골을 넣고도 지키기보다 이기려는 경기하려고 했다”면서 “(2차전 상대인) 아르헨티나가 강팀이지만 위축되지 않고 선수들이 가진 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인 감독으로 월드컵 첫 승인데. ▲나는 별로 한 게 없다. 우리 선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발전해나가고 있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쁘고 좋지만 앞으로를 위해 준비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스전 전략이 주효했다. ▲상대 공격 투톱을 차단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했다. 살핀기리스·게카스·사마라스 등이 공격할 때, 세트피스를 당했을 때, 상대가 때리고 들어왔을 때 대비가 잘됐다. 공격에서 좋은 장면만 많이 만들었지만 세밀하고 침착했다면 더 골을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상대 뒷공간을 이용하는 것과 세밀한 패스는 좋았다. -아르헨티나전 예상은. ▲아르헨티나는 우승 후보 중 하나다. 좋은 선수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 예상한다. 우리 선수들도 위축되지 말고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할 것을 한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발전해야 될 게 많지만 강한 팀이라고 주눅들지는 않을 것이다. /연합뉴스